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간이상수도에 '정수시스템' 글로벌 후부품업체로 도약

강동열 제이엘크린워터 대표

수질통합관리시스템과 정수관리시스템을 개발, 전국 최초로 간이상수도에 적용한 (주)제이엘크린워터(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강동열(44)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투자 덕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 아이템은 한 지자체당 200여개에 달하는 수질관리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을 30%까지 늘려 물 관련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 2000년 제이엘크린워터를 설립, 2002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원통형 및 웨이브 물탱크'로 NEP(우수제품) 인증을 받아 2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도했다.

또 2004년 제이엘크린워터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 '정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개발에 성공했다.

이밖에 2002년 이후 보유한 신기술도 특허 출원 26건, 의장등록 3건, 실용신안등록 23건 등 52건에 달한다. 이는 현재 한려대 신소재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강 대표의 집념이 뒷받침한 성과다.

강 대표는 "순천대·목포대·전남과학대·제일대 등 지역내 대학 등과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적극 가동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3월 이들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9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수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제이엘크린워터 강동열 대표, 자동차 주물금형 생산업체인 (주)현성테크노 김창수 대표가 수상했다.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9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제이엘크린워터 강동열 대표를 대신한 김정환 기술이사,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경영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60명의 직원을 보유한 제이엘크린워터의 매출액은 2004년 60억2천만원, 2005년 79억4천600만원, 2006년 117억4천600만원에 이어 올해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적인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프레스 주물금형 제조업체 (주)현성테크노(광산구 소촌동) 김창수(47) 대표는 "지난 3월 초 GM멕시코 메탈사 그룹과 400만 달러 금형 수주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

국·인도 등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성테크노는 '세계 탑(TOP) 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발맞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인증시스템인 ISO14001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능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올해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자동차 부품생산, 설비제작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현성테크노는 사업 초기부터 탄탄한 금형기술을 무기로 국내 주요 자동차메이커의 신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 기아·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 버스 부품전문업체인 (주)금강정공을 인수하는 저력을 보였다. 2004년 중국 심양에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11월 현성오토텍이라는 이름으로 2공장을 준공해 1천t 규모의 프레스 생산라인을 설치했다.

93명의 직원을 보유한 현성테크노의 매출은 2006년 150억3천300만원에 이어 올해에는 2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출액도 2006년 22억2천800만원에서 올해에는 5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

김 대표는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자동차 부품생산, 설비제작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현성테크노는 사업 초기부터 탄탄한 금형기술을 무기로 국내 주요 자동차메이커의 신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 기아·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 버스 부품전문업체인 (주)금강정공을 인수하는 저력을 보였다. 2004년 중국 심양에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11월 현성오토텍이라는 이름으로 2공장을 준공해 1천t 규모의 프레스 생산라인을 설치했다.

93명의 직원을 보유한 현성테크노의 매출은 2006년 150억3천300만원에 이어 올해에는 2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출액도 2006년 22억2천800만원에서 올해에는 5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진곡산단 56만평 조성

2,150억 투입... 2011년 완공

광주시 광산구 진곡·고흥·오산동 일대 50여만평이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된다. 광주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회를 열어 56만7천여평 규모의 '진곡 지방산단'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될 진곡산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1년 완공예정이며, 보상비와 개발비 등 2천15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진곡산단에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을 비롯해 기계·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등 지역 전략산업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하남산단과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 산단의 효율



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곡산단을 비롯 평동산단 등 지역 전략산업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초일류 금호아시아나인 30명 수상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29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계열사 사장단,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일류 금호아시아나인 시상식' 및 '그룹 품질경영대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품질부문 13명 ▲생산부문 6명 ▲서비스부문 5명 ▲금융부문 2명 ▲안전부문 2명 ▲송수부문 2명 등 30명이 초일류 금호아시아나인상을 수상했다.

각 부문 대상은 ▲품질경영=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오덕탁 사원, 금호화학 엔지니어 김용현 계장, 아시아나항공 성신제 과장, 대우건설 정진호 부장

▲생산왕=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박범윤 반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김윤원 계장 ▲서비스왕=아시아나항공 이희철 과장 ▲보험판매 혁신왕=금호생명 이현국 과장 ▲최우수 조종사=아시아나항공 천두봉 선임 기장 ▲최우수기사는 금호고속 김종득 승무사원 등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금배지·트로피·2호봉 승급 혜택,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금배지·트로피·2호봉 승급 혜택이 주어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은행권, 대출한도 강제 감액 추진

고객 동의 없이 일방 취소도... 마찰 예상

은행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새로운 대출약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과 마찰이 예상된다.

2009년 신개념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인 '바젤 II' 도입 이후 BIS 비율관리 등이 목적이지만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법 개정까지 필요해 도입에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은행이 제기한 은행의 일방적 대출한도조정 필요성에 대해 은행들

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대출 약관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추진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 대출약정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하려면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본인의 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 등으로 거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때에도 한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권이 새로 도입할 약정에서는 은행들이 특별한 사유나 조건없이 한도를 감액 또는 정지할

▲바젤 II = 기존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BIS)인 바젤 I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을 말한다. 현대 은행들은 BIS비율을 8%로 책정해 관리해 왔는데 신BIS협약인 바젤 II 협약에서는 자기자본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 대상에 추가했다.

수 있고 신용이 악화되면 사전통지 없이 한도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하이테크위원회' 출범

조선 등 5개분과 64명 구성

전남도에 R&D(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할 '하이테크위원회'가 구성됐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하이테크위원회' 위촉 위촉 및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R&D 관련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하이테크위원회는 생물, 천일염, 해양바이오, 신소재, 조선 등 5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모두 6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기업체 방문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산업현

장에서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토의, 해결하고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사항은 R&D 과제로 도출해 중앙정부의 R&D 사업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분과별 회의를 열어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효율적인 R&D 사업 발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하이테크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해 350억원에 그쳤던 중앙정부의 R&D 사업 유치 실적을 올해는 400억원으로 늘리고 2011년에는 7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올해 200억, 2011년 500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 바이오광산업 육성 포럼 개최

내달 3일 센트럴관광호텔

바이오 광기반기술개발사업단과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이 바이오 광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4월3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센트럴관광호텔 4층에서 '광주지역 바이오광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광주지역의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 광기술개발사업 1단계의 성과를 고찰하고,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종일 바이오 광산업 단장의 '바이오광사업단 1단계 성과 발표', 김광택 호남대 교수의 '바이오

광계측시스템 및 보정기술개발', 김시욱 조선대 교수의 '생물산업 및 공정개발을 위한 형광센서 기술개발', 채규호 전남대 교수의 '광학센서용 바이오광 소재개발', 이지범 전남대 의대 교수의 '광선역학요법의 광민감제의 개발 및 감지기 개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또 주제발 발표에는 ▲1주제=손용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행정사무관의 '지방기술혁신사업의 현황' ▲2주제=김종호 광주시 과학산업과장의 '광산업 및 주요 시장방향' ▲3주제=이종일 단장의 '바이오광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성과 및 2단계 추진계획' 등이 준비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 best insurance services, featuring a large 'U best' logo and text about insurance benefi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a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 featuring a large '새로' (New) banner and a list of services with associated costs.